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에 관한연구

-중학교과정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김 다 남

2010 年 8 月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에 관한연구

-중학교과정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昉 熙

김 다 남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8 月

김다남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 年 8 月

A Study on Art Education Based Public Arts
- Focus on curriculum of secondary school -

Da-Nam Kim

(Supervised by professor Bang-Hee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Bang-hee Kim, Prof. of Art Education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중학교과정을 중심으로-

김 다 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昉 熙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미술이 존재한다.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건물 앞에 놓은 조각이나 외벽에 그린 벽화, 공원의 조형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 모두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미술품이다. 공공미술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40여년 남짓이며, 짧은 역사 탓인지 공공미술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진 적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아무리 작품성 높은 공공미술이 주위에 있더라도 건축물의 부속물로 여겨 무심코 스쳐 지나가게 되며, 미술관에서조차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를 지닌 풍부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공미술은 공공성의 유행과 맞물려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리고, 미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의식과 안목은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므로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미술교육에서는 공공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선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도시환경에서의 공공미술의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의 공공미술 현황을 조사하고,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과 교육 흥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지도안 구성에 앞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미술에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시범중인 제주도내 3개중학교의 미술교과서의 공공미술부분을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한 과정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미술에 대해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으며, 이에 알맞은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습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그 동안 스쳐지나갔던 가까이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단순 작품 감상활동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친숙해 있는 공공미술작품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생활 속 미술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하여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미술의 감상비평학습을 통해 올바른 미적의식을 키움은 물론, 도시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직 미술교사들의 실천이 중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공공미술의 이론적 배경	3
1. 공공미술의 개념	3
2. 공공미술의 전개	4
3. 공공미술의 유형	8
4.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21
5. 공공미술의 교육적 가치	23
III.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현황 및 인식도조사 분석	25
1.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현황	25
2.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인식설문조사결과분석	34
IV. 공공미술과 미술교육의 연계	40
1.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중등 미술교육	40
2.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공공미술 내용분석	41
3. 공공미술 지도 계획	45
V. 결 론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3
부록	65

표 목 차

표 1. 공공 미술 개념의 확장	7
표 2. 미술장식 제정 및 개정 경과	26
표 3. 제주도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기준	28
표 4. 제주도 벽화 조성현황	29
표 5. 제주도 환경조형물 조성현황	30
표 6.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35
표 7. 공공미술에 대한 인지도	35
표 8. 공공미술의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대한 인식	36
표 9. 공공미술의 학습실태	37
표 10. 공공미술의 수업선정에 대한 교육흥미도	37
표 11. 학습유형 선호도	38
표 12. 2009 개정 교과서 미술과 분석결과	42
표 13. 감상수업 단계	47
표 14.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법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안	49
표 15.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감상법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안	51
표 16. 작품을 분석하여 감상하는 법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안	53

그림 목 차

그림 1. 김세중, 충무공 이순신장군(1968), 서울 세종로	9
그림 2. Robert Indiana, LOVE, 도쿄 신주쿠	9
그림 3. Richard Serra, 기울어진 호(Tilted Arc)(1981), 미국	10
그림 4. Claes Thure Oldenburg, 스프링(Spring)(2006), 서울	10
그림 5. 샌프란시스코 미션지구, 미국	12
그림 6. Chiho Aoshima, 런던 지하철역사 안(2000), 영국	12
그림 7. 파리 공사가림막, 프랑스	13
그림 8. 신세계백화점 본점 공사현장(2005), 서울	13
그림 9. 강익중, 광화문에 뜬 달(2007), 서울	14
그림 10. 서울시 신청사 공사가림막(2009), 서울	14
그림 11. 지하철3호선 전철안(2010), 서울	16
그림 12. 해치택시(2009), 서울	16
그림 13. 거제도의 가로등 모습	17
그림 14. 카츠히코 히비노, 퍼블릭 퍼니처(2006), 도쿄	17
그림 15. 강익중, 십만의 꿈(1999), 서울 파주헤이리	19
그림 16. 하영주, 우리가 가꾸는 꽃길(2009), 부산	19
그림 17. 충남애니메이션고, 벽화그리기 프로젝트(2006), 한산면	20
그림 18. 조호연, 망원동 꽃밭 주택 프로젝트(2008), 서울	20
그림 19. 천지동 걸매마을,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벽화(2006), 제주	31
그림 20. 강주현, 천지동 걸매마을(2006), 제주	31
그림 21. 공공미술프로젝트, 제주시 남초등학교(2007), 제주	31
그림 22. 기억의 정원, 두맹이 골목(2008), 제주	31
그림 23.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외부 전·후, 제주	32
그림 24. 명도암마을갤러리, 아이들 작품제작 중(2009), 제주	33
그림 25. 대평리 올레길 Art-Olle(2009), 제주	33

그림 26.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 전(2007), 서울	34
그림 27.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 후(2009), 서울	34
그림 28. 이슈화되고 있는 도외작품 감상비평지	50
그림 29. 이슈화되고 있는 도내작품 감상비평지	50
그림 30. 다른 유형 작품 비교감상비평지	52
그림 31. 같은 기능 작품 비교감상비평지	52
그림 32. 구성에 따른 감상비평지	54
그림 33. 기법에 따른 감상비평지	54



I. 서론

오늘날 도시는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환경이다.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사는 데는 각종 인프라를 필요로 하며, 그 예로 아파트, 각종 건축물, 공원, 서비스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 모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편리한 시각정보를 내뿜지만, 이로 인해 주택문제, 환경오염, 정신적 문제 등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러한 고도의 도시화와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고,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주며 도시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주는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 후 공공미술은 20세기 이후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공공성의 유행과 맞물려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중이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미술품을 의미하며, 우리 생활 주변에는 회화, 조소, 입체작품, 미디어 등 다양한 공공미술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공미술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만큼 예술로 생각하기보다 무의식중에 흘러보내 일상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현재 공공미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도시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것의 의미와 존재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공공미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를 위해서 공공미술의 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미술은 미술관에 가서 보고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미술은 언제 어디서나 보고 느끼며 의미를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미술의 의미가 소극적 형태의 감상에서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적극적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 교사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미술에 친근감을 갖도록 미술교육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미술을 이해하고, 도시환경에서 공공미술이 주는 교육적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의 문헌을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 정리한 후, 공공미술의 유형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둘째,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주의 현 공공미술의 현황을 조사하고, 제주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적 인식도와 교육의 흥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미술과 미술교육의 연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행 공공미술교육의 문제점과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의 지도방향을 선정하였다.

넷째,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과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도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3가지 감상법을 이용한 감상비평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 및 연구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제로 행해졌을 때 오는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공공미술과 함께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중에서 중학생들의 학습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학습가치가 높은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작품선정에 있어 해프닝과 같은 일시적인 것은 제외하였으며, 회화, 조각, 조형물, 디자인 같은 유형에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의 사례들로 감상비평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후 각 지역적 특색과 발달단계에 알맞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안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II. 공공미술의 이론적 배경

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public art)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¹⁾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유형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고 야외 조각전에서부터 지역 공동체의 벽화작업, 대지미술(land art), 장소 위주 미술(site-specific art), 가로 포장(paving)과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공공미술이라 하면 우리는 건물 앞이나 공원의 조형물을 쉽게 떠올리지만 아파트벽면, 버스정류장이나 벤치, 지하철 내부 벽화 등 공공미술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양한 형태로 생활주변에 존재하며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공공미술이란 개념이 처음 공식화된 시점은 “영국의 미술행정가 존 윌렛(John Willett)의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라는 책을 통해 ‘소수만이 미술을 즐기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라는 공공미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공공미술 자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던 1967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도 국립 예술 진흥원(National Endowment for Arts, NEA)이 ‘공공장소 미술 프로그램(Art in Public Places Program)’을 법제화하였다.”²⁾ 이 때 부터 공공미술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성’의 의미에서 개념차이가 있을 뿐, 공공미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공공미술은 건축물의 장식이나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상의 변화 즉, 전시장에서 공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나, 40여

1) 펠컴 마일스(2000), 「미술,공간,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Art, space and the city)」, 박삼철 역 (2000), 학교재, p.21.

2)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p.116.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념적 변화를 겪었다. 공공미술을 장식성에 한정시켜 환경조형물로 이해하는 것은 공공미술의 초기 개념에 머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놓여진 작품으로 이해하기에 공공미술은 보다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흥미, 관심사를 담아내는 공공성의 예술로 변화되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2. 공공미술의 전개

공공미술은 ‘공공성’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가에 따라 개념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공공미술의 역사는 이러한 개념적 변화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미술 장르라 할 수 있다.

공공미술의 역사는 선사시대나 고대의 거석 기념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전과 건축물의 조각,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위한 미술 등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공공 미술은 건축물의 일부로서 단순히 장식적 기능을 가지거나 공원이나 광장과 같이 공적인 장소에 놓여진 조형물로 이해되었는데 그 개념적 뿌리에는 모뉴먼트(Monument)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뉴먼트는 근대 국민국가에서 새로운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광장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과 관련된 기념비나 조각 등을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구에서 18,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집단의 정체성 부여와 계몽이라는 목적의식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 조형물로 이해되는 개념의 범주에 속한다.”³⁾

모뉴먼트는 권력의 욕구를 만족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로서 공개된 공간에 부합되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즉, 근대의 광장은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념에 동의하도록 기획된 전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광장 속의 조형물은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이의 좌대와 애국적 서사를

3) 김향미(2007),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활용방안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1권 1호, p.291.

통해 구체적인 교화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공공미술 평론가 박삼철은 “광화문 네거리의 이순신 장군 동상”⁴⁾을 그 예로 들면서 ‘물리적 높이의 좌대는 자신에게는 초월을 통해 영원성을 가져다주는 반면 보는 이에게는 복종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마일즈(Malcolm Miles)는 “무장한 군대나 경찰에 비해 적은 비용과 덜 잔인한 내용으로 확실한 사회 통제를 해 낸다”⁵⁾고 하여 모뉴먼트의 사회, 정치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도시 광장을 차지한 모뉴먼트는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이 변화되면서 ‘장소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의 토대가 된다. 모뉴먼트의 경직성을 자각한 20세기 미술가 및 미술기획자들은 작품의 물리적인 높이를 낮추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도시가 우리들의 삶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공공장소에 보다 다양한 형태와 주제를 대입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내용에서 탈피하여 도시가 우리들의 삶을 보듬는 등지이자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 모성, 성장, 진보, 풍요 등의 주제를 새롭게 채택하였다.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계획과 건축, 그리고 미술작품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도구들이 됨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도시의 예술을 위한 1% 법안을 1951년에 도입하고, 미국에서는 1967년 국립 예술 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Arts, NEA)이 미학적 계몽과 도시 미화를 위해 ‘공공장소의 예술 프로그램(Art in Public Space)’을 법제화 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일본 역시 동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문화 1% 시스템’이나 ‘퍼센트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문화정책이 도입”⁶⁾됨으로써 환경조각 작품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⁷⁾을 의무화한 것으로 민간 건축물에 한해 1%법이 법제화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미술품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이 점차 모뉴먼트에서 공공장소속의 미술로 전환되었고, 국가차원에서 하던 공공장소의 미술을 행정 부처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미술들이 ‘공

4)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조형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애국 선열 조상 건립위원회’가 시초.

5) 박삼철(2006), 전계서, p.98.

6) 문화관광부(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p.29.

7)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조항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비용의 1%를 들여 조형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제도)

공적'이라 불릴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공공적이라 여겨지는 외부공간에 설치되어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때문에 그 “예술품들은 종종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통 크기의 조각들을 확대 복제하기도 하고 동일한 것을 여러 개로 복제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 설치하기도 했다.”⁸⁾

이 당시 공공미술은 예술가들의 입장은 미학적 질을 높이고 관객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건축가와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각적 보충물이나 건물의 부수적 요소로 여겼다. 이런 공공 공간속의 미술은 정작 미술을 감상하고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뤄지지 않은 일차적인 것이었고, 이 때문인지 점차 대중들과 비평가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 여러 문제제기에 해답을 찾듯 대중들이 접근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부응하는 좀 더 공공적인 것으로 장소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에 초점을 맞춘다. 장소로서의 미술은 ‘공간’은 작품이 놓여 질 공백이 아니라 그 공간을 구성하는 자연과 대중, 역사까지도 담고 있는 장소이며, 공공미술은 그러한 공간에 부합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변화에 맞추어 “미국 국립 예술 진흥기금(NEA)는 1978년에 ‘공공적인 상황속의 미술을 위해 폭넓은 영역에 창조적으로 접근하도록’ 제안되었으며 1982년 ‘시각 예술가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미술은 주변의 건축이나 풍경 같은 장소적 요인과 소통하거나 일체화되도록 요청”⁹⁾되었다.

1970~1980년대 이후 펼쳐진 공동체 운동과 생태운동, 여성운동, 소수자 운동 등 공공적 이슈를 다양하게 경험한 서구의 공공미술은 1990년대 접어들며 공공성의 사고를 근원적으로 혁신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또는 공익속의 미술(Art in Public)로 집약되는데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기존의 공공미술의 공공성의 개념과 구별되는 형식과 표현개념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벽화운동¹⁰⁾과 1980년 시카고의 공공

8) 김인규(2004),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문제와 뉴장르 공공미술의 실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p.19.

9) 김현정(2007), “현대 공공 공간과 공공미술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6권 2호 통권 61호, p.149.

10) 197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Mission District)의 벌미(Balmy) 골목에서 시작된 멕시코인의 벽

미술프로젝트¹¹⁾가 배경이 되어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미술과 대중사이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미술과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공공미술은 ‘장소 귀속적 공공미술’, ‘지역사회에 기반 한 공공미술’, ‘공공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미술’ 등으로 불리우다, “미술이론가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편집한 「새 장르 공공미술(Mapping the Terrain-New Genre Public Art)」라는 책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이라고 명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¹²⁾되었다. 수잔 레이시는 새 장르 공공미술의 개념은 공공미술이 현재 문제를 드러내는 예술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비판이나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표 1. 공공 미술 개념의 확장

공공미술의 개념	시대 요구사항	우선 요소	상호관계 요소
모뉴먼트 Monument	이데올로기	이념	이념
장소속의 미술 Art in Public Space	공중의 접근성	작가	예술 오브제의 작품성
장소로서의 미술 Art as Public Space	공공성의 부합	작가(선)-관객(후)	공공성, 장소성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사람들의 삶	작가+관객	심리적 요소

공공미술은 모뉴먼트에서 장소 속의 미술로, 그리고 장소 속의 미술에서 장소로서의 미술로 변화했으며, 지금 현재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로 진화했다.

화 운동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벽화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벽화의 질보다는 벽화의 내용과 벽화를 만드는 과정을 중시함.

11) 환경조형물을 세우는 식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킴. 예로서 흑인 청소년들에게 비디오를 자신의 삶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기획한 ‘길거리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음.

12) 장수미(2008), “공동체를 위한 예술과 공공미술”, 「현대미술학회논문집」, Vol.12 No., p.14.

<표 1>에서 살펴 볼 수 있듯 공공미술은 시대의 요구사항과 사람들의 욕구의 변화에 따라 진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공공미술은 「새 장르 공공미술」의 저자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듯 지역민과 예술가가 함께 주체가 되어 소통하는 공공미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3. 공공미술의 유형

공공미술이라 하면 벽화(Mural), 대지미술(land art), 장소 위주 미술(site-specific art), 가로 포장(paving)과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공공미술의 유형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구분한다면 환경조각, 슈퍼그래픽, 보도 디자인, 건축물 내장 디자인 등으로 나누어지며, 장소를 중요시하여 조형물의 설치 위치로 구분한다면 바닥 경관(보도, 차도의 장식, 광장의 보도), 벽 경관(거리의 벽화, 건물의 외벽, 담장의 외벽)등으로 나눈다. 또한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Art, space and the city)」의 저자 맬컴 마일스(Malcolm Miles)는 작품을 제작하는 태도에 따라 관례적인 공공미술¹³⁾과 공동체 미술로 구분하였고, 그 영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서의 공공미술, 공공교통시설의 공공미술, 의료기관의 공공미술로 나누었다. 선행연구로 보면 김은정(2008)은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성격에 따라 대중교통 공간, 거리공간, 건축물 외벽 공간, 휴게 및 놀이공간으로 나누어 분류”¹⁴⁾하였고, 고지영(2009)은 “도시환경 구조에 따라 공공 건축물, 대중교통, 가로 및 가로시설물, 도시공원, 거주공간”¹⁵⁾으로 나누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은 대체로 어느 한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

13) '1% 예술정책'같은 의무조항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미술.

14) 김은정(2008), “프로젝트 학습 접근법에 의한 공공미술 지도방안 연구: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10.

15) 고지영(2009), “공공미술을 활용한 초등학교 미술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는 관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공미술의 유형성을 예술적 가치의 조형성 내지 심미성이 두드러진 아름답게 보는 공공미술과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참여를 넓힌 기능성·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공미술,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동적 참여에 의한 프로젝트 단위의 함께하는 공공미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아름답게 보는 공공미술

일반 대중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도시 환경에 생기를 불어 넣는 조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 장소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뜻하는 것으로 조각, 환경조형물, 벽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가 발전하고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조형물들을 눈에 띄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조형작품들이 들어서게 된 것은 1%미술장식법에 의한 건축물 공사비의 1%이내 예산으로 만들어진 환경조형물들이 많으나 이 또한 도심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공공미술품의 하나이며, 건물 앞 조형물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¹⁶⁾가 되기도 한다.

(1) 조형



그림 1. 김세중, 충무공 이순신장군 (1968), 서울 세종로



그림 2. Robert Indiana, LOVE 도쿄 신주쿠

16) 주요 지형지물로 건물이나 상징물 등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거나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것을 이룸.

<그림 1>의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은 1968년 4월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때에 변형된 조선왕조의 도로 중심축을 복원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그 대신 세종로 네거리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에 이은상 시인의 아이디어로 선열조상의 인물로서 왜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이순신장군이 결정되었다”¹⁷⁾고 한다. 이 조형물은 공공미술의 초기형태인 모뉴먼트의 대표적인 예로 과거 유신의 잔재라 하여 이전 논란까지 있었으나 여전히 세종로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우뚝 서 있다.

<그림 2>는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의 작품으로 사진의 작품은 도쿄, 신주쿠 도쿄청사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작품이다. 1962년부터 ‘LOVE’는 연속적인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뉴욕, 홍콩, 프랑스 등 다양한 곳에 전시 되어 있으며, 팝아트의 미술 속성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순수미술과 디자인이 혼합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의도적으로 강렬한 빨강과 파란 원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부각시켰다. 또한,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춰 색상과 모양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는 2005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아모레퍼시픽 본사건물을 재단장하면서 1층 로비에 작품을 설치한 것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림 3. Richard Serra, 기울어진 호 (Tilted Arc)(1981), 미국



그림 4. Claes Thure Oldenburg, 스프링(Spring)(2006), 서울

17) 충무공 이순신장군상 사이트(<http://www.choongmoogong.org>)

<그림 3>은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Tited Are)’로 1981년 국립 예술진흥원의 ‘공공 장소 미술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미국 정부가 의뢰해 뉴욕 연방 건물 광장(Javit Federal Office Building Plaza)에 설치한 조각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보행인의 움직임에 따라 광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광장자체가 거대한 조각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개념을 가진 공공미술품으로 당시 미술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나, 광장을 차지하고 보행인의 이동과 방향성에 혼란을 주어 주변 빌딩의 사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철거를 호소”¹⁸⁾했고 몇 년간에 걸친 법적, 행정적 싸움 끝에 1989년에 그 자리에서 철거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서울의 청계천에 우뚝 자리 잡은 <그림 4>의 ‘Spring’이다. 이 작품은 “KT에서 청계천 복원 1주년을 맞아 제작비 34억원을 지원하여 청계천 광장에 설치한 작품”¹⁹⁾이다. 세계적인 작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와 그의 부인 코샤 반 브루겐(Coosje van Bruggen)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다슬기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청계천의 샘 솟는 모양과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올덴버그는 작은 사물을 크게 확대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이며, 그의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신선하게 관객들과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소통을 해왔다. 그러나 그의 이번 ‘Spring’ 작품은 설치면에서나 형태면에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고 모든 것이 무시된 채 설치되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이 처음 설치될 당시 주변 환경을 간과한 채 유명 작가의 작품만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34억원 낭비라는 말과 함께 철거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도 청계천과 함께 다슬기에 정이 붙었는지 청계천 ‘Spring’ 앞에서 온갖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²⁰⁾

위의 두 작품 모두 작품이 훌륭한가 아닌가를 떠나 공공미술로서의 대중들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는 작품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됨에 있어 대중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나타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8) 김소라(2009),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도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53권 제5호 통권360호, p.13.

19) 중앙일보, “KT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 서울시에 기부” : 2006년 10월 09일, E3면.

20) 서울신문, “청계천 하늘의 치마 저고리” : 2009년 5월 9일, 27면.

(2) 벽화

건축물의 외벽과 담벼락은 그 공간의 대표 이미지가 된다. 도시의 색채는 외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외벽공간은 공공미술의 좋은 장이다. 건축물의 외벽 공간의 경우 작품 제작 방법에 있어 다른 공간보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거대한 크기를 갖는 등 다른 공간보다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샌프란시스코 미션지구, 미국



그림 6. Chiho Aoshima, 런던 지하철역사 안(2000), 영국

<그림 5>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션지구(Mission District)의 벽화이다. 이곳의 여덟 블록에는 80개가 넘는 멋진 벽화가 밀집되어 있어 매년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벽화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1971년 미션 지구의 벌미(Balmy) 골목에서 시작된 멕시코인의 벽화 운동은 지역 예술가와 여성 벽화 예술가 단체의 주도로 점차 확산됐다. 이러한 멕시코 벽화 운동이 흘러들어 히스패닉이 모여 사는 미션 지구에 전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곳은 전체가 벽화가 유명한 예술지역이 되었다. 예전엔 주로 정치적 이슈를 표현했지만 현재는 휴먼, 문화, 역사적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그림 6>은 “2000년 영국 런던의 ‘플랫폼 포 아트(Platform for Ar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인 작가 치오 아오시마(Chiho Aoshima)가 제작한 작품”²¹⁾이다.

21) 임근혜(2009), 「창조의 제국:영국 현대미술의 센세이션」, 지안출판사, p.383.

런던의 오래되고 낮은 플랫폼 아치 사이의 벽면은 SF적 요소와 장식적인 일본 전통회화, 그리고 현대 만화풍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의 풍경으로 가득 채워졌다. 런던의 지하철은 1863년 생긴 가장 오래되고 최악의 시설을 자랑하면서 자국인 조차 이용을 꺼려했으나 이 프로젝트로 런던의 지하철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했고, 이 작품을 보러 일부러 지하철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림 7. 파리 공사가림막(2007), 프랑스

그림 8. 신세계백화점 본점 공사현장 (2005), 서울

프랑스 파리는 다양한 소재와 여러 공간에서의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7>은 “센강(River Seine)을 따라 파리 39번지 즈음에 설치된 진행한 공사장 가림막이다. 이것은 2007년 건축가 앙투안 로크빌(Antoine roqueville)과 조형 예술가 피에르 드라비(Pierre dravi)가 함께 작업한 것”²²⁾으로 리뉴얼 중인 건물의 전체를 마치 화산의 용암이 용솟음쳐 흘러내리는 듯 영상이미지로 감싸 놓아 관심을 모았는데, 시공기간동안 건물에 맞춘 가림막을 하여 도시 미관에 기여한 것이다.

파리의 공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펼쳐지는 그들의 예술 활동으로 시민이나 관광객을 즐겁게 한다.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공사장마다의 개성 있고 멋진 가림막은 프랑스 도시정책과 건물주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이를 만든 작가들의 자긍심에 의한 노력의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다.

22) 월간디자인, “파리 공사장 가림막에 나타난 초현실 도시”, 2007년 6월호.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공사장에 새로운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듯하다. <그림 8>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리노베이션 공사장 가림막이 대표적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비처럼 내리는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겨울비(Golconde)’가 건물 전체를 감싸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²³⁾ 저작권료만 1억 원에 가림막 제작비로 2억 원 가량 소요되어, 일반 천 가림막에 비하면 수십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지만 기업이미지 홍보 효과만으로도 본전 이상을 뽑은 셈이다. 오히려 공사가 끝난 뒤 철거되면서 아쉬워한 이도 있었다. 한편, 광화문 복원 공사가 한창인 세종로에는 강익중의 ‘광화에 뜬 달’을 만날 수 있다.



그림 9. 강익중, 광화문에 뜬 달 (2007), 서울



그림 10. 서울시 신청사 공사가림막 (2009), 서울

<그림 9>가 ‘광화문의 뜬 달’인데 예전 광화문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높이 27m, 가로 41m 규격의 세계최대 미술작품이다. 강익중 씨가 그린 2,616개의 그림 패널을 모자이크해 만든 작품으로 메인 테마인 달항아리와 백자그림이 1,582점, 인왕산 그림 948점, 단청 단색 그림 86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고궁을 방문해 문화재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그림 3,000여장과 전 세계 어린이가 보내준 2,000여장의 그림도 함께 전시되어 뜻이 깊다.

오천 년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광화문을 연출한 강익중 작가는 “우리나라의 높은 예술적 문화적 이미지를 담아 시민들이 광화문의 달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23) 조선일보, “고흐로 화장하고 고갱을 먹는다” : 2005년 10월 25일, 9면.

꿈꾸길 바라는 차원에서 기획했다”²⁴⁾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사장 가림막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위에서 제시한 <그림 8>의 2005년 신세계백화점 본관 공사 때부터라 보는 시각이 많으며, 그 뒤 공사장 가림막이 도시 미관에 도움을 준다는 환영의 입장과 낭비라는 비판의 입장도 있었다. 그 예로 <그림 10>의 서울시 신청사의 가림막은 2009년 한글날과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오방색 도형과 ‘서울사랑’의 한글 자모로 구성된 모빌아트 작품을 설치 한 것이며, “현재까지 총 그림을 4번이나 바꾼 서울시 신청사 공사장 가림막은 사용된 비용만 모두 6억2000만원에 달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²⁵⁾

논란이 되는 공공미술에는 이유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기울어진 호’ 나 ‘Spring’ 등은 그곳을 이용하는 대중의 정서와 미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정절차에 있어서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논란은 더욱 쟁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공공미술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술가는 설치될 장소의 역사와 성격, 그 지역주민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의 결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명작품이 세워졌는가 아닌가를 떠나 아름다운 작품이 놓인 곳, 눈이 즐거운 공공미술이 있는 공공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공미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많은 시설물을 보게 된다. 많은 교통 시설들은 우리를 먼 곳까지 편하게 이동시켜주며, 벤치는 시민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담소하거나 홀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보도, 가로등, 정거장, 휴지통 등의 시설물은 우리가 목적의 여부에 관계없이 늘 접하게 되는 시설이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더욱 기능성과 함께 심미성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도시의 작은 요소로서 시민과 주변에 어울리면서 작은 배려를 큰 만족으로 승화시키는 작용해야 한다.

24) 월간 팜샤인, “광화에 뜬 달, 민족의 염원을 담다”, 2008년 2월호.

25) 한겨레신문, “예술이나 낭비냐..공사장 가림막 딜레마” : 2010년 1월 20일, 14면.

(1) 교통시설

마일스가 “공공미술이 개입하는 3대 영역 중 하나로 꼽을 만큼 미술가들은 역사, 공항, 터미널의 시각 이미지 작업과 기차, 지하철, 버스 등 운송 시설의 디자인에 참여 해왔다.”²⁶⁾ 교통시설의 공공미술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되기도 하며, 지하철, 버스 등의 경우 광고물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림 11. 지하철3호선 전철안(2010), 그림 12. 해치택시(2009), 서울
서울

<그림 11>은 지하철 3호선 전철의 내부의 모습이다. 각 문마다 한국의 관광홍보 이미지를 넣어놓았는데 일시적인 광고 성격을 지닌 형태이지만 답답한 전철안을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2009년 서울시에서는 뉴욕의 옐로캡과 같은 서울을 상징하는 택시를 만들고자 ‘해치택시’를 만들었다. <그림 12>가 해치택시의 모습인데, 이 택시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²⁷⁾와 서울 대표 10색 중 하나인 ‘꽃담황토색’, 서울서체인 ‘서울남산체’가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²⁸⁾ 하지만 “바람의 저항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크고 부자연스러운 표시등과 향후 교체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서울을 상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²⁹⁾를 받고 있다.

26) 맬컴 마일스(2000), 전게서, p.172.

27) 해치는 선약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의 원래 이름. 서울시가 2008년 5월 13일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외국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한 서울의 상징물.

28) 디자인서울총괄본부-디자인서울사이트 (<http://design.seoul.go.kr>)

29) 한국경제신문, “서울 상징 ‘해치’ 애물단지로…” : 2010년 04월 01일, 15면.

이 같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해치택시가 출발도 하기 전에 뼈격거리고 있는 것은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승객이나 업체 간 준비 및 대화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는 버스의 혼잡을 줄이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 교통체계에 따라 버스의 색상을 R, G, B, Y로 통일하여 운영”³⁰⁾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시민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었지만, 체계 수정과정과 홍보를 통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해치택시는 선정에서 시행까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대중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색상을 바꾸는 충분한 당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 가로 및 가로 시설물

거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해주는 이동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며 불특정 다수인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런 도시의 거리에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시설물은 “편의성과 더불어 도시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을 배려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³¹⁾되고 있다.



그림 13. 거제도의 가로등 모습



그림 14. 카즈히코 히비노, 퍼블릭 퍼니처(2006), 도쿄

<그림 13>은 거제도를 밝히는 가로등의 모습이다. 가로 시설물중 대표적인 가로등은 그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거제도의 갈매기 가로등”³²⁾은

30) 2004년 7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체계개편으로 노선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빨강(R)은 광역노선, 파랑(B)은 간선노선, 초록(G)은 지선노선과 마을버스, 노랑(Y)은 순환노선을 나타냄.

31) 박찬숙 외(2009),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도서출판 가인, p.81.

32) 새겨제신문, “갈매기 가로등” : 2009년 11월 26일.

그 모양이 거스름이 없이 가로등의 형태와도 잘 어울린다. 가로등은 고속도로, 시가지의 주요 도로, 상업지구 도로, 주택지구 도로 등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빛을 선사해 준다. 빛을 밝히는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거리의 경관을 구성하는 가로 시설물의 한 구성 요소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인 기능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림 14>는 ‘이 커다란 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Where did this big stone come from? Where does this river flow into? Where am I going?)’라는 아주 긴 철학적인 제목의 카츠히코 히비노(hibino katsuhiko)의 퍼블릭 퍼니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강가를 따라 여기저기 널려 있는 커다랗고 둥근 바위에서 모티브를 얻고, 어린 시절 바위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던 생생한 기억을 작품에 옮긴 것이다.

도시 속의 작은 도시인 도쿄 롯본기(六本木) 길거리에서는 세계적인 작가의 유명 작품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작품 중 한 종류가 퍼블릭퍼니처(Public Furniture)이며, 이는 만질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스타일리쉬한 벤치 시리즈를 이르는 말이다. 이 작품들은 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이곳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준 거리의 미술작품인데 이는 예술 작품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공간이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이기도 하다. 거리공간 속에는 각종 사인물, 휴지통, 벤치, 보도블록 등의 편의시설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은 기능성과 상징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거리의 조형물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술작품으로서 환경과 미적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

3) 함께하는 공공미술

공공미술을 시행함에 있어 작가뿐 아니라 정책담당자, 그 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미술을 의미하며, 서로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미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을 실현해 나간다.

공공미술이 발달되기 시작한 이래 함께하는 공공미술이야말로 시, 민간단체, 지역사회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공공미술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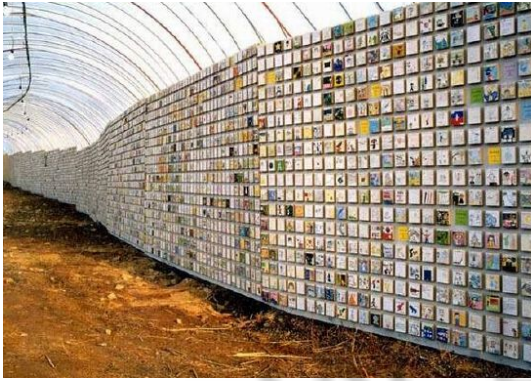


그림 15. 강익중, 십만의 꿈(1999)
서울, 파주헤이리



그림 16. 하영주, 우리가 가꾸는 꽃길
(2009), 부산

<그림 15>는 “강익중의 ‘십만의 꿈’으로 남북한 어린이 10만의 그림을 통해 이 테올리기를 초월하여 한국의 평화로운 미래 더 나아가서는 분쟁 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파주 헤이리에서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전시”³³⁾되었으며 비록 일시적인 행사로 도심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도심 형성의 꿈과 공동체의 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공공미술의 예로 꼽히고 있다.

<그림 16>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09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및 (사)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된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츄’ 사업의 공공미술 작품이다.”³⁴⁾ 이 프로젝트는 원도심의 보존과 재생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벽화그리기 방식의 기존 공공미술과 달리 10개의 입체 조형물을 사업 대상지의 도로와 마을 입구 등지에 설치했으며 이 도자기 벽화는 하영주 작가 지도아래 감정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작품으로 도자기를 색별로 구워 꽃모양을 만들어 기존 담에 부착하였다.

33) 김홍희(2005),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 한길아트, p.26.

34) 뉴시스, “부산 감천산복도로 마추픽츄 마을축제” : 2009년 10월 07일.



그림 17. 충남애니메이션고, 벽화그리기 프로젝트(2006), 한산면



그림 18. 조호연, 망원동 꽃밭 주택 프로젝트(2008), 서울

<그림 17>은 2006 충남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학생들의 벽화를 그리는 모습이다. “2005년 한산면 사무소에서 한산면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학교 측에 제안하면서 2학년 미술수업으로 처음 벽화그리기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이 봉사활동은 이어지고 있다.”³⁵⁾ 당시 폐교 직전이던 상업고등학교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학교의 기존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봉사활동인 동시에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도 신장함으로써 학생들 간은 물론 지역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림 18>은 공화국 리라³⁶⁾가 주관한 망원동 ‘동네 예술가 프로젝트’중 조호연 작가가 진행한 꽃밭 주택 프로젝트다. 이 건물은 무려 40가구가 모여 사는 좁은 연립주택으로 벽면의 작품들은 집집마다 하나씩 그려 부착한 것이다. 망원동은 상수 침수지역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고, 노후 주택이 많다. 이런 망원동에 작지만 눈길을 끄는 작은 변화들로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 더욱 뜻 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미술에는 많은 유형의 다양한 형태를 지닌 작품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공공 공간의 미술 작품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미술 작품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 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단순한

35) 대전일보, “고등학생들 손으로 시골마을 예술의 거리로” : 2006년 9월 12일.

36) 2005년 석수시장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처음 만들어진 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단체로 하영호대표를 중심으로 팀원이 모두 미술작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도 활발히 새로운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장식으로 전락하고 만다.

공공미술은 분명히 미술관, 갤러리의 예술과는 구별되기에 미적인 측면은 물론 이거니와 기능적, 대중적 경험과 교감을 두루 갖추었을 때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며, 비로소 바라보고,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4.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도시는 인간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환경이지만, 산업의 발달로 인구, 환경, 정신적문제 등을 야기했다.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를 원했으며, 이로 인해 공공미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공공미술과 함께 자연스럽게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1) 도시환경의 개념

“도시(都市,city)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며 환경(環境,environment)은 생물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³⁷⁾을 의미한다. 즉, 도시환경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을 말한다.

도시는 지구상에 인류가 농사를 짓고 모여살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인류는 도시를 통해 문명을 만들었다. 중세시대로 오면서 인류는 본격적인 상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을 불러왔고 물질문명의 과다한 발전과 급속한 성장 정책으로 인해 도시를 생산과 소비 활동 중심지로 만들었으며,”³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야기 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는 무미건조한 도시경관과

37) 국립국어원사이트 (<http://www.korean.go.kr>)

38) 김인(2006), 「도시해석」, 푸른길, p.66.

주택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시라는 공간은 인간의 삶을 담은 공간이고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이러한 혼재 속 도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과학적 이기와 경제의 논리로 발달되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정서적 환경으로서의 도시, 감성적 요소와 자연환경의 합일체로서 문화적 환경을 이루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는 사람들의 삶, 문화, 정신, 역사, 희망, 꿈 등을 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도시환경에서 공공미술의 기능

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 영향을 받은 도시의 건축물들은 도시환경을 일률적이고 삭막하게 만들었고, 이런 도시의 모습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황량하고 삭막한 도시의 사람들은 삶의 질의 향상과 정서적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도시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거리 곳곳에는 각종 표지판이나 그림타일, 벽화 등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환경미술들이 생겨났고, 도시에서는 공공미술을 통한 정서적·심미적 요소를 제공하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공공미술은 도시공간에서 허름하고 삭막한 건물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장식적인 요소뿐 아니라 더 발전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환경에서의 공공미술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조절과 지표로서의 기능(Land Mark)을 한다. 도시의 거대한 인공적인 스케일의 건물들의 공간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의 조망이나 교차지점이나 광장의 중요 표식으로서 지표의 기능을 한다.

둘째, 지역 환경 개선 기능을 한다. 공공미술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환경개선 기능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지역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개발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 효과는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지역특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셋째,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거리,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 미술작품이 설치되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만 가능했던 작품 감상의 기회가 확대 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관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미술로써 미술의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예술을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친근감을 높여 주었다.

넷째, 지역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공공미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그 이후 쾌적하게 변화된 공간을 통해 교류를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연대를 발전시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미술은 공적인 가치를 목적에 두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제공한다. “장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높여주고 매력을 불러 일으켜 활동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양에 효과”³⁹⁾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미술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지니는데 공헌한다.

이렇듯 공공미술은 오늘날 현대적이고 차가운 도시공간에 다양한 색채나 형태의 변화를 통해 미적, 인간적 요소를 부여하며 도시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서적인 활력소를 제공하여 도시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다.

5. 공공미술의 교육적 가치

“미술교육을 보면, 학생들의 감성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작품화하여 나타내는 외형적인 활동인 ‘표현활동’이 있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감정이입을 통해 향수하는 ‘감상활동’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과 교수와 학습에서는 이 두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 중에서 인격적 발달에 유익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미술교육의 내용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⁴⁰⁾

공공미술에는 벽화, 조각, 매체,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있고, 표현

39) 서상우(1999),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대 조형연구소 학술지」, Vol.- No.1, p.1.

40) 김삼량(199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6.

재료와 양식, 기법 등이 다양하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예술성뿐만 아니라 대중성, 실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미적 감수성, 창의성을 자극하고 미적 안목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 공공미술은 미술교과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는 교육적 가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환경은 성인보다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의 주위환경을 돌아보고 그것의 존재가치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의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둘째, 생활 가까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미술이다. 시간이나 돈을 따로 투자하여야 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예술작품들과 달리 공공미술은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않으며, 생활과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등교 길에 학교벽면이나 버스정류장에서도 볼 수 있으며, 길가의 벤치, 아파트근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거나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실용적인 미술이다.

셋째, 공공성과 감상 비평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공공미술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예술과는 달리 다분히 대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교감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공공미술의 예와 문제점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비판적 감상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공공미술의 정의를 일깨워 줄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한다. 공공미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하는 동안 서로 유대감을 증진 시키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미술의 표현활동을 교육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급단위의 협동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공미술은 도시환경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을 통해 미적안목을 키워 삶을 풍요롭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켜나가는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Ⅲ.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현황 및 인식도조사 분석

1.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현황

몇 해 전부터 각 시, 도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던 도시에 활력을 주거나, 소외된 곳을 개선하기도 하며, 도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관 주도 형태의 공공미술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도 2006년 이후 관 주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7개의 크고 작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시, 동 단위에서 테마거리를 앞 다투어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에도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공미술작품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공공미술의 교육적 활용에 앞서 우리나라와 제주의 공공미술 정책과 제주의 공공미술 조성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공공미술 진흥 정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2006년과 2007년 시행되었던 “아트 인 시티(Art in City:소외지역 생활개선 공공미술사업) 등은 과거 공간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형식이 아닌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결정적인 공공미술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⁴¹⁾ 이후 민간단체로 활동하는 동네예술가프로젝트, 공공미술프리즘, 퍼블릭아트피바와 같은 독립 프로젝트 그룹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안양시), 대인시장프로젝트(광주시),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서울 중구청), 대추리 공공미술프로젝트(경기문화재단) 등 처럼 각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공미술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제도는 193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1%법을 모델로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시문화환경 개선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⁴²⁾되었다. 처음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41) 월간 퍼블릭아트, “2010년, 다시 새기는 공공미술의 표정”, 2010년 1월호.

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문화적으로 세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작가를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법을 모델로 삼게 된 것이다.”⁴³⁾ 이 제도가 고안되고 시행되었던 초기 단계에서 공공미술의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장식에 있었으며, “국민의 정부 이래 건축물 미술장식법을 공공미술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참여정부에서조차 보수적 미술인과 이권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⁴⁴⁾ 한국의 경우, 서양의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 겪어온 공공미술의 변화과정을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표 2. 미술장식 제정 및 개정 경과

시 기	원 인	내 용	비 고
1972.8	도시 미화정책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물 미술장식 조항 제정 -권장사항, 연면적 3천m ² 이상	건축비의 1%
1984.7	서울시 이미지화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등)	서울시 의무사항 조례 개정 -연면적 1만m ² 이상 건축물 의무이행 강제화	건축비의 1%
1995.7	대통령 공약 선정	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사항으로 개정 -미술장식 1%상향, 연면적 1만m ² 이상	1988년 연면적 7천m ² 하향
1997	규제개혁 폐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산업단 삭제 또는 완화 권고 -문화체육부와 합의 도출 못 해 백지화	
1999.3	규제개혁위 완화 결정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무 완화결정 -문화관광부 문예진흥법 개정, 1%이하로 하향 조정, 2000.1월 발효	2 만 m ² 까 지 -0.7% m ² 초과시-0.5%
2004	공공미술 모색	문화관광부, 미술장식문제 개선 및 도시 경관 기여 위해 공공미술로 개정추진 -현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국회문화관광위 계류중	미술계 내 이견, 갈등
2006.5	국가 청렴위원회 권고	미술장식 개선 조치 권고 및 중장기 과제로 폐지 또는 가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로 개편	문화관광부 미술계 의견 수렴

출처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2010), 「2009Artscape JEJU」

42) 신현중(2007),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p.13.

43) 이병인(2004), “공공미술의 지도 방안 연구: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p.9.

44) 박찬경, 양현미(2008), “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 「문화과학」, 53호, p.98.

현재까지의 미술장식 제정 및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고, 공공미술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개념으로 한정 짓고 있으며, 현재는 2010년 일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⁴⁵⁾에 근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미술장식’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의 조형 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 등과 같은 환경조형물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다.

공공미술품을 설치해야하는 종류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숙박시설 등 이며,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따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심의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⁴⁶⁾되어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여 작성한 심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45) 문화예술진흥법 [(타)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08호 시행일 2010.6.18]

4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2008.01.09 조례) 제311호 제6장.

르고 대부분 공공미술 작품들이 건축물 미술장식에 따른 작품이 많이 있으나, 2007년 시행되었던 아트 인 시티(Art in City, 소외지역 생활개선 공공미술사업)사업 시작으로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미술이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2) 제주도의 공공미술 현황

예전의 제주지역에서 공공미술작업이라 부를 수 있는 작업들은 1% 미술장식법에 의한 건축물 공사비의 1%이내 예산으로 만들어진 환경조형물들과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들어 공공시설물에 조성된 그래픽 위주의 벽화들이 그것이다.

지난 2007년 공공미술사업추진 일환으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에서 제주지역 벽화분야와 환경조형물로 구분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벽화분야 총 192점, 환경조형물 총 99점이 조사되었다. 벽화의 경우 방파제 월파방지용 벽화, 가설벽·컨테이너·공장벽, 거리 담·벽, 학교·공공시설 외벽, 양식장 외벽, 아파트 슈퍼그래픽, 일반주택·건물 외벽, 가스충전소담벽, 농업용배수탱크 외벽, 선박용유류저장탱크 외벽 등으로 구분 조사되었으며, 환경조형물의 경우 관공서, 박물관·공원, 학교, 아파트·공동주택, 호텔·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조형물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제주도 벽화 조성현황

구 분	작 품 수
월파방지벽(방파제)	14
가설벽·컨테이너·공장외벽	16
거리 담·벽	22
학교·공공시설 외벽	18
양식장 외벽	27
아파트 슈퍼그래픽	10
일반주택·건물 외벽	34
가스충전소담벽	13
농업용배수탱크 외벽	13
선박용유류저장탱크 외벽	25
계	192

출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2008), 「2007제주공공미술」

표 5. 제주도 환경조형물 조성현황

구 분	작 품 수
관공서	12
박물관·공원	8
학교	19
아파트·공동주택	12
호텔·오피스텔	25
상업용 건물	23
계	99

출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2008), 「2007제주공공미술」

위의 <표 4>의 벽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시기별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자치단체 주도의 벽화는 2001년 당시 남제주군(현 서귀포시)이 먼저 주도한 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준비하면서 환경정비사업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된 것들이다. 특히, 육상 양식장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용자 등을 통하여 자율정비라는 측면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다. 북제주군(현 제주시)의 경우 이보다 늦은 2004년에 이르러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전역의 양식장 외벽·농업용 배수탱크·방파제 등에 대대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 주도의 벽화들은 뉴 제주운동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명품도시만들기·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재탄생되면서 최근에는 시가지 내까지 확대되었다.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참여형 공공미술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으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공동체와 교감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이 등장한 것은 2006년 전국문화의 달 사업의 일환으로 한 제주시 도남1차 수선화아파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만들기’부터이다. 이듬해 서귀포 천지동에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인 시티(Art in City) 사업으로 ‘결매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그림 19>, <그림 20>이 바로 2006년 서귀포 천지동에서 이루어진 결매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진이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오래된 천지동 골목길을 변화시키는데 무게를 실었으며, 제주의 함께하는 참여형 공공미술이 발전된 계기가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9. 천지동 걸매마을,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벽화(2006), 제주 서귀포시



그림 20. 강주현, 천지동 걸매마을 (2006), 제주 서귀포시



그림 21. 공공미술프로젝트, 제주시 남초등학교(2007), 제주



그림 22. 기억의 정원, 두맹이 골목 (2008), 제주

이후 2007년부터 제주도는 공공미술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주관 하에 5개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도심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5년간 국비 8억원, 도비 10억원을 들여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처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주관으로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림 21>의 제주시 남초등학교 ‘우리들의 꿈’ 교문프로젝트와 서귀포 신시가지 문화공원 ‘미래를 묻다’, 건입동 ‘마을 박물관’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2008년에는 <그림 22>의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 골목 ‘기억의 정원’과 서귀포시 동홍동 ‘Art-놀광섬팡’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행되었고, 두맹이 골목은 추억의 때가 묻어 있으며,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주안

점을 두고 의견의 수렴해 폐가의 위치에 쉼광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 오래되고 낙후된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2009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기다림, 머무름, 떠남’을 주제로 버스터미널의 오래된 외관과 내부 개선사업을 진행했으며, 시의 예산과 프로젝트의 특성상 건물자체를 모두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오래됨과 새로움의 결합을 통해 버스터미널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림 23>은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전·후 의 외관의 모습이며, 건물 내부에는 이용객의 사연을 직접 붙일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건물 중앙 입구 밖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손자의 정겨운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과 제주의 용암석인 현무암 벤치를 통해 쉼터를 조성하였다.



그림23.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외부 전·후(2009), 제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도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선정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한 <그림 24>, <그림 25>의 ‘2009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두 곳에서 이루어 졌는데 봉개동은 활용하지 않는 마을창고를 마을갤러리로 재탄생시켜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 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생작품을 전시하여 주민의 쉼터, 커뮤니티 공간을 이루었다. “대평리는 올레길에 중점에 두고 길섶미술로(路) 꾸미기‘올레길-Art Olle’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서양화가 고순철, 서예가 윤덕현씨 등이 참여해 마을 안내지도, 올레길 이정표를 설치하고 이 곳 올레길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조성”⁴⁷⁾ 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동 제작함으로써 지역민과 예술제작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림 24. 명도암마을갤러리, 아이들 작품제작 중(2009), 제주



그림 25. 대평리올레길 Art-Olle (2009), 제주

최근 3~4년 새 제주에는 크고 작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칙칙한 골목길 담벼락을 페인트로 단장하고 타일 등을 붙였다. 이와 같은 공공미술 작품들은 다양한 종류의 재료와 기법으로 만들어져 생활 속 좋은 교육소재가 될 수 있는 한편, 지자체와 동 사이 경쟁이라도 하듯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비평을 받고 있는데, 공공미술은 다분히 공적이어야 하며, 공간의 성격이나 지역민과 소통 없이 이루어진 공공미술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미술을 진행함에 있어 ‘공공성 실현’에 목적을 두고, 지역민과의 대화와 참여의 강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미술을 보이는데 치중하여 작품완성에 급급하기보다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림 26>은 “2006년 12월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문화 소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부분”⁴⁸⁾이며, 2년 후의 촬영한 벽화 사진인 <그림 27>을 보면 매우 훼손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7) 제주일보, “봉개에 마을갤러리, 대평에 예술올레 조성” : 2009년 05월 25일.

48)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 자료 블로그 (<http://blog.naver.com/mtb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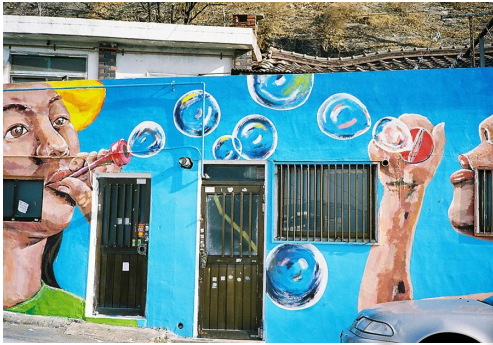


그림 26.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 전 (2007), 서울



그림 27.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 후 (2009), 서울

벽화는 타일벽화나 부조벽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옥외용 수성페인트 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도료들은 내구연한이 2~3년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보다 경관적으로 더 불량한 흉물이 되기 일쑤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허름한 마을환경을 밝게 만든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지속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제주에는 지금 공공미술이 행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훼손도가 심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부터 사후관리비를 충분히 책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경우 공공미술품이 그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작품이 아니므로 공공미술의 참여와 소통, 사후관리에 대한 학습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인식설문조사결과분석

제주지역에 알맞은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공공미술에 대한 인지도 및 교육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술과 디자인 비전공자 일반인 50명, 대학생 50명, 일반계 고등학생 50명, 중학생 5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문항수	조사방법
인적사항	기본인적	2	선다형
인식 및 이해조사	공공미술의 이해정도	1	
	공공미술에 대한 도시의 변화느낌척도	1	
교육도 조사	공공미술의 교육 경험정도	1	
	공공미술교육의 흥미정도	1	
	공공미술의 수업비중정도	1	

<표 6>과 같이 문제의 문항 수는 7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본인적사항 2문항과 공공미술교육의 필요성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정도 조사 2문항과 교육적 활용을 위해 공공미술 교육관련 3문항을 각각 선다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통하여 그 결과를 나타냈으며, 첫 번째는 공공미술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공공미술에 대한 인지도

구분	중 학생		고 등 학생		대 학생		일 만 인		전 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	평균
자세히 알고 있다	1	2	2	4	1	2	1	2	5	2.5
알고 있다	10	20	18	36	13	26	18	36	59	29.5
들은 적 있다	15	30	19	38	20	40	19	38	73	36.5
잘 모른다	10	20	7	14	13	26	12	24	42	21
전혀 모른다	14	28	4	8	3	6	0	0	21	10.5

공공미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알고 있다 29.5%, 들은 적 있다 36.5%, 잘 모른다 21%로 제주도에 공공미술이 들어 온지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에 비해 인지도는 미비하지만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들은 적 있다’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공공미술을 소통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표 8. 공공미술의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대한 인식

구 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일 만 인		전 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	평균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다	22	44	20	40	24	48	33	66	99	49.5
변화는 느끼지만 별 차이 없다	11	22	16	32	12	24	11	22	50	25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	9	18	8	16	11	22	3	6	31	15.5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7	14	4	8	3	6	0	0	14	7
바뀌기 전이 좋다	1	2	2	4	0	0	3	6	6	3

전 세계적으로 공공미술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했으며 제주에서도 근래에 들어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공공미술프로젝트와 시, 동 단위의 테마거리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도시환경에 있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다 4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현재 공공미술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공공미술의 학습실태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	평균
있다	6	12	15	30	8	16	10	20	39	19.5
없다	24	48	18	36	33	66	29	58	104	52
잘 모르겠다	20	40	17	34	9	18	11	22	57	28.5

인지도와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공공미술의 교육경험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분석결과는 위<표 9>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나 유관기관 등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경험도를 물어본 결과 있다 19.5%, 없다 52%로 교육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는 있다 12%로 평균보다 7.5%나 낮아 정규미술교과과정에서 공공미술 분야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공공미술의 수업선정에 대한 교육흥미도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	평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	7	14	7	14	8	16	9	18	31	15.5
재미있을 것 같다	18	36	24	48	35	70	38	76	115	57.5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4	8	6	12	4	8	1	2	15	7.5
재미없을 것 같다	8	16	6	12	2	4	0	0	16	8
잘 모르겠다	13	26	7	14	1	2	2	4	23	11.5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 경험도가 상당히 낮는데 비해 공공미술을 수업 단원으로 선정하고 실제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 15.5%, 재미있을 것 같다 57.5%로 73%에 달하는 대부분이 공공미술 수업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꼈다.

표 11. 학습유형 선호도

구 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일 반 인		전 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합계	평균
이론중심	2	4	4	8	1	2	0	0	7	3.5
이론과 감상	17	34	10	20	18	36	9	18	54	27
이론과 실기	7	14	8	16	19	38	22	44	56	28
실기중심	23	46	28	56	11	22	19	38	81	40.5
기 타	1	2	0	0	1	2	0	0	2	1

공공미술을 수업단원으로 선정하여 실제수업 진행시 학습유형의 비중으로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실기중심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대부분이 이론 수업보다 실기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설문조사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경험도가 낮는데 반해 관심과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의 홍수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공공미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간단한 개념정도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7년 이후 제주도 각 동에서 테마거리조성과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밀접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학습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공공미술의 올바른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단체단위의 공공미술활동이 행해짐에 따라 지역, 단체, 주민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과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서 무작정 미관만 생각하여 공공미술사업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미술의 기능이나 주변환경과 조화, 주민과의 소통 등 공공미술이 지녀야 할 중요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개념정립과 인식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의 흥미도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실제적으로 교육으로 행해졌을 시 상당한 호응도가 기대되므로 학교에서는 미술정규수업에서,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참여나 평생교육⁴⁹⁾ 등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 학교 정규수업으로 진행시 학습유형의 선호도의 의견은 실기가 높게 나타났으나 입시위주의 학습풍토와 학교의 미술시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므로 공공미술이 활용되는데 제약이 따른다. 1주일에 40분 정도의 짧은 수업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단체와 학교와 연계한 공공미술의 실기 수업은 현재로서는 힘들며, 실기수업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스케치나 학교게시판꾸미기, 모형제작에 그쳐 기존 수업과 다를 바 없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학습을 하고자하는 흥미도가 높고 학습경험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학습가치가 높은 것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였다.

49)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교육관. 이를 위해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방송통신교육을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나 대학 등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운영됨.

IV. 공공미술과 미술교육의 연계

1.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중등 미술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23일 그 동안 점수 위주의 입시경쟁, 획일적 교육운영, 과도한 사교육비 등의 병폐에서 탈피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2009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이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⁵⁰⁾

그 주요 개정 내용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10~13 → 8과목 이하로 축소하고 통합운영 가능한 교과는 특정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은 음악과 함께 예술교과로 통합운영 되어 진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양성교육을 도입하였다.

셋째,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을 신설하였다.

넷째, 고등학교 총 이수단위를 210에서 204로 축소하고,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선택 집중 학습이 가능하다.

다섯째, 범교과 학습 요소로 '녹색교육', '한자교육'등을 추가하였다."⁵¹⁾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에 시범 적용할 연구·선도학교 200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심사를 거쳐 초

50)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정 기획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답자료”, 교육과학기술부, p.1.

51)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등학교 68곳, 중학교 66곳, 고등학교 66곳이 뽑혔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5, 부산 13, 대구 12, 인천 12, 광주 12, 대전 12, 울산 9, 경기 22, 강원 13, 충북 12, 충남 13, 전북 11, 전남 12, 경북 12, 경남 12곳, 제주 8곳⁵²⁾이다.”⁵³⁾

연구·시범학교 외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 초 1,2학년, 중1학년, 고 1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미 개발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중3의 경우 2012년까지 적용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는 2013년까지 적용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별책13]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르며 미술과를 음악과 함께 예술교과군에 포함시키고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미술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변경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각 교과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므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기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⁵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육목표를 토대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공공미술 내용분석

2009년 8월 검·인정⁵⁵⁾된 미술교과서는 “미래엔컬처그룹, 교학연구사, 지학사, 두산동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미진사, 일진사 7개 출판사 총 9종”⁵⁶⁾이며, 이번

52) 도순초, 서호초, 외도초, 제일중, 중앙중, 효돈중, 제주외고, 제주여고 총 8곳.

53) 헤럴드경제,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 학교 200곳 선정” : 2010년 3월 29일.

54) 김승익(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학기술부, p.13.

55) 국정교과서 이외의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9학년도 중학교 미술 본심사 결과”

검·인정 교과서는 학년의 구분 없이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부 연구시범학교 중1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는 2009년 8월 19일 검·인정한 두산동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학연구사의 개정교과서를 입수하여 공공 미술 작품과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2. 2009 개정 교과서 미술과 분석결과

출판사	영역	단원	소단원	참고작품 및 표현	페이지
두산동아	미적 체험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구조	자연에서 배우기	·스프링, 올덴버그, 2006	10
			생활 속의 조형미	·서울 중앙우체국 앞 공공의자 ·안국동 감고당길 돌의자	13
		우리와 함께하는 시각문화	생활 속 숨 쉬는 시각문화	·길을찾다, 강선미, 1971 ·돋음별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19
	표현	입체 표현의 아름다움	조소란 무엇일까	·스트라빈스키의 샹, 텡겔리&생팔, 1983 ·풍선강아지, 쿤스	124 ~ 125
				·뉴스페이퍼, 장진연, 1990 ·떨어뜨려 껍질과 조각이 흩어진 사과, 올덴버그, 2002 ·망치질하는 사람, 브로프스키, 2002 ·구름문, 카푸어, 2004	134 ~ 135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그림과 문자를 이용한 디자인	·인사동 한글모양 나무보호대 장식	147
		우리가 꿈꾸는 디자인	모두를 위한 환경디자인	·가림막디자인, 고우석, 2007 ·남께드릴건 사랑밖에없어요, 시게오 우치다, 2003 ·제주탐동방과제	160 ~ 162
				·파리센강39번지, 2007 ·여행, 한애규, 2002	178
	감상	보고 느끼는 즐거움	보고 느끼는 즐거움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미적 체험	자연환경을 담은 조형물	자연환경을 담은 조형물	·스프링, 올덴버그, 2006 ·에펠탑, 에펠, 1889	12
	미적 체험	생활 속의 시각문화환경	생활 속의 시각문화환경	·공사가림막, 유준상, 2008 ·안산시 갈매기 식수대 ·넘께드릴건 사랑밖에없어요, 시게오 우치다, 2003	16 ~ 17
			함께하는 미술	·구름문, 카푸어, 2004 ·안창마을벽화, 구현주, 2007 ·돋음별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나쁜건 안 봤어요, 오터니스, 2004 ·공공벽화 탐방- 스스로해보기	18 ~ 20
		다양한 표현기법	다양한 표현기법	·골든 게이트 하이츠 계단, 크루치, 2005 ·구엘공원, 가우디, 1900 ·서울시 신관공사가림막	43
		상상과 느낌의 신비로운 세계	상상과 느낌의 신비로운 세계	·파리39번지블리커사육, 2007	45
	새로운 발상과 표현		·스폰 다리와 체리, 올덴버그, 1988	49	
	표현	공간의 미를 살려서	입체 종이건축물 만들기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만들기-종이건축물모형 제작	102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	·스페인구엘공원, 가우디, 1900	146
			실외환경디자인	·학교환경꾸미기-함께해 보기	149
		흙과 불의 만남	흙과 불의 만남	·소리나무, 성동훈, 2007	155

미 적 체 험	미술과 인간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망치질하는 사람, 보로프스키, 2002 ·타란투라 전시, 이탈리아, 2007 ·데씨구엘 부스입구, 2007 ·서울시 도시갤러리 동화시장프로젝트, 2007	8~11	
	자연과의 만남	자연을 응용한 조형미	·꽃밭(공공미술프로젝트), 최정화, 2007	43	
	물질을 만나다	물질을 만나다	·자리, 최병훈, 2007	73	
	생활 속 디자인	디자인의 이해	·하늘로 열린길, 강철현외, 2007	114	
교 학 연 구 사	표 현	생활 속 디자인	표정이 있는 거리	·조형성이 돋보이는 자전거 보관대, 김학민, 2007 ·걸터앉는 화분대, 스위스, 2007 ·암스테르담의 전차	139
		함께하는 미술	시각 문화 환경	·파리 블리커 사육, 공사가림막, 2007 ·안락한인물, 무어, 1984 ·소리꽃(공중전화박스), 디자인로커스, 2007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협동작	148 ~ 151
미 적 체 험	표 현	함께하는 미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미술	·지하문화회관, 김민규, 2008 ·수박, 부산안창마을, 2007 ·꽃밭주택, 조호연, 2007 ·부산안창마을벽화	164 ~ 165

교과서 내용으로 본 공공미술교육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3종의 교과서에서 공공미술에 관한 소단원을 구성하는 등 공공미술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도는 보이고 있으나, 교과서에 제시된 공공미술의 개념과 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참고 작품으로 제시된 것이 대부분 함께하는 공공미술이 아닌 조형물이나 벽화에 한정

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유형에 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공 미술프로젝트로 진행된 작품들이 공공미술부분의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에 속해 있어 공공미술적인 개념보다 그저 조형물이거나 기념비적인 미술품에 한정지어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현재의 교과서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프로젝트형식의 공공미술 예시작품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여 참여와 소통이 증시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을 학생들이 인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미술 작품이 미적체험과 표현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미술 작품의 문제점이나 의미와 해석, 비평 등이 불가능 하다고 분석된다.

3. 공공미술 지도 계획

1) 공공미술 교육적 활용의 한계점

공공미술은 ‘공공’이란 단어 속에 공공장소, 공적 가치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작품형태에 있어서도 공공장소를 디자인한다거나 건물의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등 미술활동에 있어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학교의 미술시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다르므로 공공미술이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선행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업운영에 있어 학교담장이나 교실꾸미기를 할 경우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한 학년에 걸쳐 다루고 있거나, 기존 미술수업과 다를 바 없는 스케치나 모형제작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현직교사들 또한 공공 미술에 대한 학습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교사지식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 교과서에 공공미술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업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입시지향적인 입시 중심의 교육풍토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만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미술수업 진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 실기중심의 수업의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지역단체나 학교자체의 지원, 또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실기수업과 다름없이 단순한 실기수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러

므로 수업시간활용은 물론 학생들에게 공공미술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내용선정의 연구가 필요하다.

2)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 계획

실태 설문조사결과로 보았을 때 공공미술은 우리 삶의 주변에 깊이 스며있으며, 사람들은 공공미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학습경험도는 매우 낮았으며, 이는 교육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제까지 알맞은 교육을 실천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등학생의 미술교과서경우만 보더라도 공공미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은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이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알맞은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미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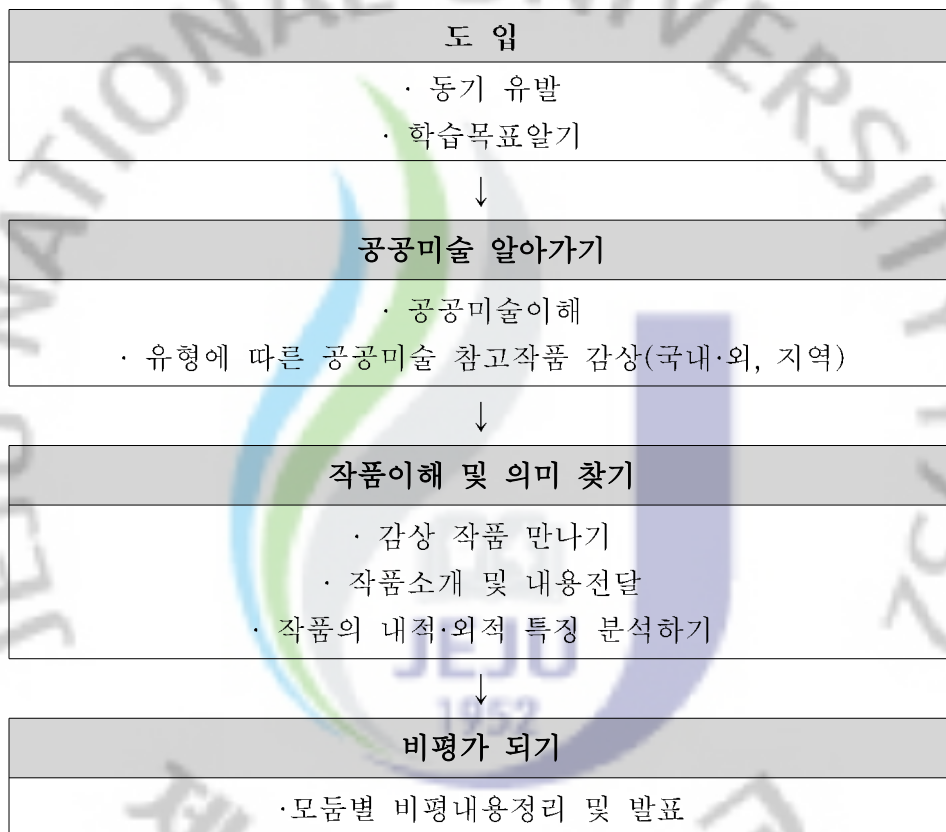
공공미술이 2000년 후반에 들어 화두가 되고 있고, 개정되어 나오는 교과서에서도 이를 인식하는 듯 공공미술을 단원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미적 체험이나 표현에 그치는 등 감상영역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삶과 밀접한 예술분야임에 틀림없거니와 그저 감상에 그치는 작품이 아니라 예술, 작가, 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제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와 언론, 시민단체들의 의견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공공장소성이라는 장소와 맞물려 선정절차와 설치 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감상비평학습을 제시함으로써 그저 감상평만 나열하는 ‘미술관을 다녀와서’형식의 감상문이 아니라 작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회에서의 논쟁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사회성과 협동심을 함양은 물론, 공공미술에 대해 더욱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공공미술의 이해와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한 이론적 개념정립과 지역의 공공미술작품을 활용하여 비평적 감상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미술 교육안의 구성은 감상과정과 감상활동으로 구성하고 감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감상 작품과 감상 작품 설명을 제시하여 구성한다.

감상방법은 각 유형의 차시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법에 따라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법, 두 가지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감상법, 작품을 알고 분석하여 감상하는 법⁵⁷⁾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감상수업의 진행단계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감상수업 단계



이 감상 수업 단계는 비평을 통한 감상 과정에 근간을 두고 진행하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화를 위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토의, 토론을 통한 감상수업을 구성한다. 교사지식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발문유도하며 그를 통해 상상력과 비평적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57) 감상작품의 적용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독감상법, 비교 감상법, 분석종합적감상법, 작가연구법이 있고, 수업형태에 따라 토론법, 관찰법, 모의 미술관법, 모사법, 문예법이 있다. 또한 교수학습모형에 따라 연구에 따라 문답형, 비평형, 통합형 등 다양한 미술감상법을 제시하고 있음.

(1) 공공미술 감상비평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설정의 이유>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공공미술을 소재로 하여 공공미술은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측면을 깨닫게 해주며, 미술 작품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공미술의 올바른 감상능력을 키움으로써 지역과 환경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습목표>

- 공공미술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한다.
- 공공미술과 우리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공공미술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예를 들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공공미술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찾아 말할 수 있다.
- 공공미술작품 올바른 판단과 비평적 감상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고장의 공공미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지도상 유의사항>

- 효율적인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한다.
- 공공미술 감상에 있어서 미술품 심미성과 환경과의 조화,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수준과 흥미, 관심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토론 시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토론보고서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도한다.
- 형태를 찾기보다는 작품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 조형적 질서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작품과 대화를 하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표 14.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법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감상과 비평		차시	1/1
소단원	공공미술		대상	중학교
준비물	교사	공공미술 사진자료(국내,국외,제주), 컴퓨터, 빔프로젝터, 스크린, 유의물		
	학생	필기도구		
단계 (시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 학습분위기 조성 · 전시학습상기 · 학습동기유발 ·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전시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상기시킨다. · 생활 주변의 공공미술에 관한 경험을 유도하는 발문을 한다. · 학습목표를 다함께 읽게 한 다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읽고 난 뒤 수업에 대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교탁 · 컴퓨터 · ppt · 공공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판 제시 · 학습목표파일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의 개념 정리 · 공공미술 이해하기 · 우리고장의 공공미술 이해하기 · 모듈별 토론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 이론학습을 시각자료로 제시한다. · 공공미술의 유형에 따른 참고사진을 제시한다. - 작가의도, 주제를 알아보고 의미 찾기 · 우리고장 공공미술의 사진을 제시한다. - 우리고장 공공미술 알기 · 작품의 설명을 제시한다. -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작품도가 높다. 아니다. · 비교 후 토의한 내용으로 비평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자료 · ppt 자료 · ppt 자료 · 작품화면 · 감상토론 비평지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 발표 · 학습내용 정리 · 차시예고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 결론사항 발표하기 -의견이 다른 경우 학생 간 질의응답 ·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다음시간에 대해 예고한다. · 자신 주변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표 15.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감상 법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감상과 비평		차시	1/1
소단원	공공미술		대상	중학교
준비물	교사	공공미술 사진자료(국내,국외,제주), 컴퓨터, 빔프로젝터, 스크린, 유의물		
	학생	필기도구		
단계 (시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학습분위기 조성 ·전시학습상기 ·학습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시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상기시킨다. ·공공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판 제시 ·학습목표를 다함께 읽게 한 다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고 난 뒤 수업에 대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화교탁 ·컴퓨터 ·ppt ·공공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판 제시 ·학습목표파일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의 개념 정리 ·공공미술 이해하기 ·모둠별 토론학습 ·비평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 이론학습을 시각자료로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의 개념 - 공공미술의 역사 ·공공미술의 비교 참고사진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도, 주제를 알아보고 의미 찾기 ·작품과 작품의 설명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두 작품의 선호도와 그 이유 찾아보기 - 비교 감상 후 비평문 써보기 ·비교 후 토의한 내용으로 비평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자료 ·ppt 자료 ·작품화면 ·감상토론 비평지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발표 ·학습내용 정리 ·차시예고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다른 경우 학생 간 질의응답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다음시간에 대해 예고한다. ·자신 주변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두 가지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감상 방법을 통한 감상비평지 안



그림 30. 다른 유형 작품 비교감상 비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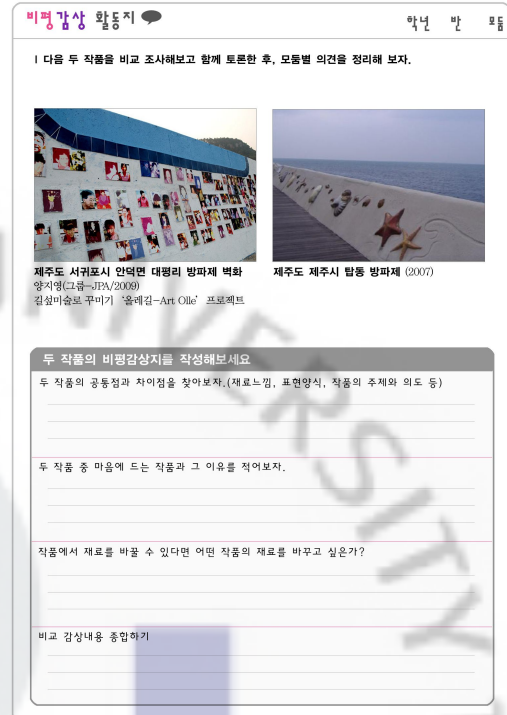


그림 31. 같은 기능 작품 비교감상 비평지

본 과정안은 두 가지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감상법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공공미술의 의미와 표현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법이다.

<그림 30>의 경우 주민참여프로젝트 형식의 공공미술작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망치질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 참여형식의 공공미술을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했으며, <그림 31>의 경우는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미술작품이지만 유형이 서로 다르며, 재료나 기법이 매우 상이하므로 학생스스로 재료나 기법을 다르게 표현했을 경우 상상하며 감상할 수 있다.


표 16. 작품을 분석하여 감상하는 법을 통한 감상비평 교수-학습과정안

단원	감상과 비평		차시	1/1
소단원	공공미술		대상	중학교
준비물	교사	공공미술 사진자료(국내,국외,제주), 컴퓨터, 빔프로젝터, 스크린, 유의물		
	학생	필기도구		
단계 (시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학습분위기 조성 ·전시학습상기 ·학습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시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상기시킨다. ·생활 주변의 공공미술에 관한 경험을 유도하는 발문을 한다. ·학습목표를 다함께 읽게 한 다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고 난 뒤 수업에 대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화교탁 ·컴퓨터 ·ppt ·공공미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판 제시 ·학습목표파일
전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의 개념 정리 ·공공미술 이해하기 ·우리고장의 공공미술 이해하기 ·모둠별 토론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 이론학습을 시각자료로 제시한다. ·공공미술의 유형에 따른 참고사진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도, 주제, 기능 알기 - 재료의 느낌, 표현양식, 표현기법 찾기 ·우리고장 공공미술의 사진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과 느낌 이야기하기 ·작품과 작품의 설명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모둠별 토론학습 제시 -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 재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비교 후 토의한 내용으로 비평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자료 ·ppt 자료 ·ppt 자료 ·작품화면 ·감상토론 비평지
정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발표 ·학습내용 정리 ·차시예고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다른 경우 학생 간 질의응답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다음시간에 대해 예고한다. ·자신 주변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작품을 분석하여 감상하는 법을 통한 감상비평지 안

비평감상 활동지 학년 반 모둠

! 다음 작품을 분석해 보고 함께 토론한 후, 모둠별 의견을 정리해 보자.



아트 인 시티(Art in City) '걸매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7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공모에 걸매리마을(제주)의
기회가 선정되어 2007년 9월까지 서귀포걸매지역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위의 두 작품은 길에 무심하게 나와있는 배관을 이용해서 작품화 한 것이다.

위 작품의 비평감상지를 작성해보시오

이 작품의 재료와 재료가 주는 느낌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모듬의 종합의견

그림 32. 구성에 따른 감상비평지

비평감상 활동지 학년 반 모듬

! 다음 작품을 분석해 보고 함께 토론한 후, 모듬별 의견을 정리해 보자.



포구입체조형물(김경수)
길이 46m x 높이1.5/2009

<세부모습>

제주 서귀포시 대평리에 그룹-JPA가 진행한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올레길 - Art 올레'
올레는 제주 사투리로 '작은 길', '좋은 길이란 뜻으로
공공미술(문화)을 접목하여 Art(예술) + 올레(오고 싶은 길, 초대하고 싶은 길)을 만들어 보고자 추진

위 작품의 비평감상지를 작성해보시오

이 작품의 재료와 재료가 주는 느낌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모듬의 종합의견

그림 33. 기법에 따른 감상비평지

본 과정안은 작품을 분석해서 각 요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감상법으로 작품의 구도나 색채, 재료, 기법 등을 분석하여 감상할 수 있다.

<그림 32>은 제주 서귀포시 걸매마을 공공미술프로젝트의 한 작품으로 하수파이프를 이용한 작품으로 작품구성이나 기법이 독특한 작품이며, <그림 33>은 타일조각을 이용한 모자이크 형식의 포구조형물로 색채 면에서 강렬한 색채대비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작품이 주는 의미와 특징을 찾고 모듬별 의견 교환을 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지도할 때에는 작품을 지나치게 과학적, 분석적, 지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으로 대화하듯 느낌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해보기

- 우리 동네에 어떤 공공미술작품이 있는지 하룻길에 유심히 둘러보고 발견한 공공미술작품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 잡지나 신문 등에 실린 공공미술 작품관련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스크랩해보자.
- 관심을 가지고 미술 기사나 자료를 자주 접하다 보면 객관적인 이해와 사회적 평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 매체에서 다루었던 기사와 자신이 느낌이나 견해를 비교하여 정리해본다면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화가 되어갈 수록 개개인의 논리는 무시되어지는 경향이 있고, 공공미술이 행해짐에 있어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감상비평교육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장하여 지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미술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모둠별 토론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면서 사회성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공공미술을 활용한 감상비평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다양한 시각으로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안목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한편, 감상비평교육 외에도 공공미술은 다양한 교육 방법이 행해질 수 있는데, 그 예로 생활환경 표현부분을 활용하여 협동학습을 통한 우리학급 및 학교공간꾸미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우리 동네 아름답게 가꾸기 형식의 프로젝트수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미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연구가 선행되어진 후 수업에 활용되어야 하겠다.

V.결 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인간이 살아갈 공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도시화와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주며 도시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 공공미술이며, 20세기 이후 공공성의 유행과 맞물려 공공미술은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이 들어선 것은 약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근래의 일이지만 그 사이 공공미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 발전도에 비해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공공미술은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대중이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미술품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오늘날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작품 자체보다 참여와 소통이라는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미술은 단순히 장식품으로 전락하므로 공공미술이 행해짐에 있어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교사들이 공공미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미술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과 학습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공공미술의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분석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분석 위하여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의 공공미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벽화, 조형작품 외에 2007년 이후 약 7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와 테마거리조성사업이 진행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내에도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미술품들이 많이 제작됨에 따라 공공미술에 대한 인지도와 교육적 흥미도를 알아보기로자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미술이 제주에 들어온 지 4년여 밖에 되지 않은 것에 비해 인지도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한편, 교육경험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육경험도가 낮음에 반해 응답자의 73%가 공공미술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 분석결과를 통해 공공미술이 수업체제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교육안 마련을 위한 미술교과서 분석결과 감상영역에서의 공공미술 부분이 교육적으로 매우 미약하였다.

공공미술은 다른 미술작품과 달리 공공의 영역에서 행해지므로 비평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후반 이후 언론과 지역주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감상영역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과 비평을 이용한 감상비평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방안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미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친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미술이 지닌 공공성, 지역성, 사회성을 이용하여 올바른 개념 정립과 나름의 작품분석·해석이 가능하며, 작품에 대한 색다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적극적인 감상능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해외나 지역외의 사례는 물론, 지역의 공공미술작품의 시각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공미술과 환경, 지역사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넷째, 모둠별 토론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이나, 의견을 조율하는 법 등을 배우면서 협동심과 사회성을 함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공미술 수업안은 학생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학습에 끌어들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익숙한 교사들의 경험부재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활용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미술교육 활성화와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의 인식향상, 수업활성화 및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한 교사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미적체험과 표현영역에서도 이론과 실습을 활용한 연구가 선행되어 실제수업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로 공공미술에 대한 안내책자와 지자체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대중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감상비평학습이 실제 수업에 활용됨으로써 청소년들이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에 관심을 갖고 현대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문화를 가꾸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필중 외(2005), 「도시환경과 사인디자인」, 미진사.
- 김삼량(199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인(2006), 「도시해석」, 푸른길.
- 김홍희(2005),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 한길아트.
-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 박찬숙, 권영걸 외(2009),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도서출판 가인.
- 박휘락(1998),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아트.
- 임근혜(2009), 「창조의 제국:영국 현대미술의 센세이션」, 지안출판사.
- 노다 구니히로(2009), 「창조 도시 요코하마:공공디자인의 과거와 미래」, 정희정 역 (2009), 예경.
- 멜컴 마일스(2000), 「미술,공간,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Art, space and the city)」, 박삼철 역(2000), 학교재.
- 수잔 레이시(1995),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지형 그리기(Mapping the Terrain-New Genre Public Art)」, 이영욱 역(2010), 문화과학사.

<학술지>

- 강수미(2008), “공동체를 위한 예술과 공공미술”,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Vol.12 .
- 김소라(2009),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도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53권 제5호 통권360호.
- 김향미(2007),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활용방안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1권 1호.
- 김현정(2007), “현대 공공 공간과 공공미술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다니엘 뷔렌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통권61호.
- 서상우(1999),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대 조형연구소 학술지 No.1.

<학위논문>

- 고지영(2009), “공공미술을 활용한 초등학교 미술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리내(2009), “공공미술을 활용한 중등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정(2008), “프로젝트 학습 접근법에 의한 공공미술 지도방안 연구: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규(2004),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의 문제와 뉴장르 공공미술의 실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신현종(2007),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지혜(2010), “공공미술을 활용한 중등 미술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교육대학원.
- 이병인(2004), “공공미술의 지도 방안 연구: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교과서>

- 고승혜 외(2009), 「중학교 미술」, 두산동아.
- 박은덕 외(2009), 「중학교 미술」,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이성도 외(2009), 「중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기타>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미술”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전국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달라지나?”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학교
교육 실현”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정 기획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답자료”

뉴시스, “부산 감천산북도로 마추픽츄 마을축제” : 2009년 10월 07일.

대전일보, “고등학생들 손으로 시골마을 예술의 거리로” : 2006년 9월 12일.

문화관광부(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타)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08호 시행일 2010.6.18]

서울신문, “청계천 하늘의 치마 저고리”: 2009년 05월 09일.

서울특별시(2007), 「내가 디자인하는 서울:2007 공공디자인 공모전作品集」

서울특별시(2008), 「내가 디자인하는 서울:2008 공공디자인 공모전作品集」

서울특별시(2008), 「시민이 만든 휴식:2008 벤치·의자 디자인作品集」

제주일보, “봉개에 마을갤러리, 대평에 예술올레 조성” : 2009년 0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2008.01.09 조례) 제311호 제6장.

조선일보, “고흐로 화장하고 고갱을 먹는다” : 2005년 10월 25일.

중앙일보, “KT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 서울시에 기부” : 2006년 10월 9일.

한겨레신문, “예술이냐 낭비냐..공사장 가림막 딜레마” : 2010년 01월 20일.

한국경제신문, “서울 상징 '해치' 애물단지로...” : 2010년 04월 0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9학년도 중학교 미술 본심사 결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2008), 「2007제주공공미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2010), 「2009Artscape JEJU」

헤럴드경제,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 학교 200곳 선정” : 2010년 03월 29일.

<사이트>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http://curri.mest.go.kr>)

갤러리하루블로그 (<http://club.cyworld.com/clubV1>)

공공미술프리즘 (<http://www.free-zoom.com>)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낙산공공미술프로젝트블로그 (<http://blog.naver.com/mtb33>)

뉴스시스(<http://www.newsis.com>)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디자인서울총괄본부 (<http://design.seoul.go.kr>)
마을미술커뮤니티블로그 (<http://blog.daum.net/maeulmisul>)
세계제신문(<http://www.saegeoje.com>)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http://apap.anyang.go.kr>)
월간퍼블리카트 (<http://www.artinpost.co.kr>)
월간디자인 (<http://mdesign.design.co.kr>)
월간팝샤인(<http://www.moazine.com>)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
청계광장 공공미술 대책위원회 (<http://cafe.naver.com/cgpublic>)
충무공 이순신장군상 (<http://www.choongmoogong.org>)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헤럴드경제(<http://www.heraldbiz.com>)

<ABSTRACT>

A Study on Art Education Based Public Arts

- Focus on curriculum of secondary school -

Da-Nam Kim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ang-Hee Kim

We have different forms of art people witness in public today. Displaying a piece of painting or an unusual object near a public building is considered a way of expressing one's art. History of public art is not as ancient as other arts such as paintings or sculptures. With only approximately 40 years of short background, it is not taught formally in public schools for students and for adults, not many books are available about public arts today. It is unfortunate that there are many objections and debates among people and how truly valued public arts are not credited as ones' image because of our lack of knowledge on public art. In art galleries, people miss opportunity to enjoy the beauty behind ones' famous arts because they simply don't know. They are just considered a bunch of objects displayed for people to see because they look unusual.

It is necessary to co-exist public art and pop trend together with support of people. More vital roles are needed to announce in general art and strong emphasis on importance of it are must to improve perception of people on public art today. In addition, public education should mandate public art classes just as important as science or math classes. To support this proposal, we surveyed in many different

ways from attitude and interest of 200 local people on public art to three middle schools that are teaching public art in a class temporarily as an experiment to examine how much students enjoy learning it.

Although the attitude and perception of many people toward public art consider vague as true art the goal is to discover the true value and beauty of public art. It shouldn't just be a simple art people see and forget next day but rather inspire by one's public art and pay as much respect as other known arts today such as paintings or sculptur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0.

(부록) 설 문 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공공미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내용은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답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니 어려워 마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다 남

※ 다음 각 문항에 해당되는 답변에 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2)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13~16세 ②17~19세 ③ 20~28세 ④ 29세 이상 ⑤40세 이상

※ 다음은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적 개념입니다. 잘 읽고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미술 (public art)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미술용어이며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3) 당신은 공공미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①자세히 알고 있다 ②알고 있다 ③들은 적 있다
④잘 모른다 ⑤전혀 모른다

(4) 이전에 학교나 유관기관, 또는 매체에서 공공미술에 대해 배우거나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잘 모르겠다

(5)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도시 골목이나 시설물 등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 ①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다 ②변화는 느끼지만 별 차이가 없다
③변화를 느끼지 못 하겠다 ④변화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 하겠다
⑤바뀌기 전이 좋다

(6) 미술교과의 수업단원으로 공공미술영역을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 ②재미있을 것 같다
③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④재미없을 것 같다 ⑤잘 모르겠다

(7) 공공미술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면 한다면 수업의 비중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이론중심 ②이론과 감상 ③이론과 실기 ④실기중심
⑤다른의견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